

## 출토 기물(장기말)

쇼기 기물(장기말) 이 출토된 유적의 연대는 헤이안 시대 후기부터 에도 시대에 이르기까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키노와사쿠(城輪柵) 유적의 출토 사례는 헤이안 시대 후기에는 쇼기의 보급 범위가 도호쿠 지방까지 퍼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흥미롭습니다. 출토 사례가 가장 많은 시대는 아즈치에서 모모야마에 걸친 시대로, 특히 아사쿠라씨 유적의 출토 기물이 알려져 있듯이, 출토 사례의 대부분이 관저 터나 성터에서 나온 것이 특징적입니다. 이것은 그때까지 귀족이나 승려 사이에서 놀이되었던 쇼기가 이 시대에 들어서는 무사 계급에까지 파급되었음을 보여줍니다.